**마1822 Note**

**◆ 이정표: 하나님의 죄의 사면- 롤랜드 벅(roland buck)**

사4325. 나, 바로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네 범법들을 지우는 자니,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라,

"나는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용서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했을 때,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하늘에서는 이미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구나,

내게 있어 '용서'란 단순히 그 어떤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란다"

" 주님 저를 한번 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내가 과거에 너를 용서했었다는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단다, 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단다,

이번이 처음이구나! 기꺼이 용서해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롬0405. 그러나 일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아쎄베스: 경외하지 않는,불경건한,사악한) 자들을 적법하다고 여기시는 분 위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은 '법적 깨끗함'으로 여겨지느니라.

‘법적 깨끗함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마치 한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용서와 법적으로 깨끗하다고 여기심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낙심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이란다"

레1610. 그러나 '속죄의 염소(아자젤: '내어보냄'의 염소,속죄의 염소)'가 되도록 제비가 떨어진 염소는 그것에게서 한 몸이 되기(화목하기) 위한 속죄금(배상금)을 치르기(카파르: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달래다,지워버리다, 가라앉히다,취소하다,제거하다, 진정시키다, 화목하다, 화목을 이루다,자비롭다,칠하다,정하게 하다,정결케 하다,자비롭다) 위해, 또 속죄의 염소(아자젤)로서 그를 광야 속으로 보내기 위해, 여호와 앞에 살려서 제공되어야(아마드:서다,뒤에 남다,지정하다,일어나다,그만두다,확실히 하다,계속하다,거주하다,고용되다,참다,확립하다,떠나다,만들다,정하다,끝내다,두다,나타나다,일으키다,남다,고치다,섬기다,위에 두다,확고히 서다,머무르다,체재하다) 하느니라.